

광주극장서 ‘예술·독립영화’로 영화로운 한 해 마무리

장 쾃 고다르 작품 재구성·신작 등 스크린서 선보

독립영화관, 다큐 ‘1980 사북’ 28일 무료 상영도



‘여행과 나날’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영화사에 획을 그은 예술 영화와 역사적 의미가 담긴 다큐멘터리로 한 해를 영화롭게 마무리 해보는 것은 어떨까.

국내 유일 단관극장이자 예술·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광주극장과 한국 독립영화를 선보여온 광주독립영화관이 각각 다채로운 작품을 스크린에 올려놓았다. 지역 극장에 앉아 풍성한 영화들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내년을 맞아 보자.

광주극장은 누벨바그(1950~1960년대 영화사의 페이지를 장식한 경향으로 프랑스어로 새로운 물결이란 뜻)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장 쾃 고다르 감독의 작품을 재구성한 ‘누벨바그’, 독보적인 시각으로 세계관을 구축해온 독립영화 신작 등을 스크린에 올린다.

먼저 ‘누벨바그’(31일 개봉)는 리처드 림플레이터 감독이 ‘현대 영화사를 바꾼 20세기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하나’라는 평을 받는 장 쾃 고다르 감독의 혁명적인 데뷔작 ‘네 멋대로 해라’의 제작기를 담은 작품이다. 4대3 흑백 셀룰로이드 화면으로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누벨바그의 생동감 넘치는 순간들과 장 쾃 고다르가 보여주는 자유로운 에너지 및 규칙을 깨는 영화 제작기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볼거리를 안겨준다.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31일 개봉)는 미국 북동부, 아일랜드 더블린, 프랑스 파리 등 거리만큼 관계가 멀어진 세 가족의 오랜만의 만남을 섬세하고 우아하게 선보인다. ‘브로큰 플라워’와 ‘패터슨’ 등 꾸준히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로 현실과 몽환적 감성을 오가는 영화 세계를 표현해온 짐 자무쉬 감독의 신작이다.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케이트 블란쳇부터 아담 드라이버, 빅키 크리엠프, 톰 웨이츠, 샬롯 램플링까지 믿고 보는 배우들이 출연한다.

‘슈퍼 해피 포에버’(28일 개봉)는 주인공 사노가 5년 전 아내 나기와 사랑에 빠졌던 휴양지를 다시 찾으며, 영원하길 바랐던 지난 여름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이야기다. 하마구치 류스케와 미야케 쇼를 잇는 일본영화의 새로운 물결로 주목받는 이가라시 고헤이 감독의 신작으로, 제81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베니스데이즈 개막작 선정에 이어 전 세계 17개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하나 그리고 둘’(25일 개봉)은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삶의 진실과 그 이면을 포착한다.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과 ‘타이페이스토리’, ‘공포분자’ 등 전작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에드워드 양 감독의 세계관을 집대성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고, 올해 칸 영화제 클래식 부문에 공식 초청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극장에서 다시 만나야 할 이유를 증명했다. 최근 ‘씨네21’ 선정 1995~2024 해외영화 베스트에서 No. 1을 차지하는 등 국내외의 우수 매체와 영화제가 인정한 걸작이다.



‘누벨바그’

앞서 개봉한 ‘사운드 오브 폴링’(지난 17일)은 같은 집에서 다른 시대를 산 네명의 소녀를 통해 100년을 관통하는 여성 서사를 다룬다. 제36회 스톡홀름영화제 감독상과 제78회 칸영화제심사위원상을 각각 받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을 넘나들며 활약 중인 배우 심은경이 주인공인 각본가 ‘이’ 역을 맡은 ‘여행과 나날’(지난 10일)은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한 각본가 이가 어쩌다 떠나는 설국의 여관에서 의외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시작되는 꿈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카데미 비올(1.37:1)로 담긴 여름과 겨울, 각 계절의 정수는 물론, 각본가 이의 여행과 나날 속에 더해진 각본 속 이야기가 일상과 비일상의 경

계를 허물며 꿈같은 시간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18세기 아르메니아의 시인 사야트 노바의 일생을 은유와 상징으로 담아낸 ‘석류의 빛깔’(지난 20일), 일본에서 25년 만에 일본 실사 영화 최고 흥행작 탄생을 알린 한국인 이상일 감독의 ‘국보’가 스크린을 채운다. 각종 영화매체에서 올해의 한국영화로 선정되는 등 호평과 꾸준한 입소문에 힘입어 18만 관객을 돌파한 윤가는 감독의 ‘세계의 주인’도 연말까지 계속 상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062-224-5858.

이와 함께 광주독립영화관(GIFT)은 오는 28일 오후 5시10분 1980년 사북사건의 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을 무료로 상영한다.

작품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노동운동을 조명한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분노한 광부들은

사북을 장악하고 바리케이드를 쳤고, 전두환 신군부는 광부들을 진압하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을 담았다.

사북항쟁은 한 달 후 광주에서 벌어진 5·18민중항쟁의 전초전 같이 남아있는 사건이지만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사과나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광부들에게는 고문과 구타, 광부의 부인들에게는 성고문까지 가했던 국가폭력이었음에도 이들은 폭도로 낙인찍힌 채 숨죽여 살아야 했다.

작품은 45년 후,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기억이 엇갈리며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상황을 토해 잊힌 현대사의 비극, 광주 한 달 전, 밝혀지는 사북에 묻힌 진실을 파헤친다.

영화관람은 현장 예매만 가능하며, 선착순 40명 입장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하늘·땅·바다·생명 ‘광주과학관 유아놀이터’ 새 단장

4개 테마 지구환경 흥미 중심 기획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지구환경을 구성하는 권역들의 집합체인 ‘지구시스템’을 주제로 기존 유아놀이터를 전면 세대장해 23일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에 새 단장한 유아놀이터는 지구시스템의 지권·기권·수권·생물권 등 4가지 요소를 하늘과 땅, 바다, 생명의 이야기로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에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직접 만져보는 놀이 중심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공간은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특색 있는 테마로 이뤄진다.

아이들이 온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며 대근육을 발달시키는 화산놀이터(지권)는 정글짐과 클라이밍, 슬라이드 등 역동적인 놀이 시설을 체험해 아이들의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된다.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소근육 발달을 돕고 보호자를 위한 감성 휴식 공간으로 마련된 구름놀이터(기권)는 소형 구조물과 다양한 감각 교구들로 구성,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다.



새 단장한 유아놀이터 전경.

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바다놀이터(수권)는 물 소용돌이와 물레방아, 낚시 놀이, 탁터피쉬 체험 등 흥미로운 물 기반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꼬마 탐험가가 돼 숲속 동식물을 체험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숲속 캠프(생물권)는 동물인상 입기와 소리 듣기, 촉감놀이 등 멸종위기 동물 이야기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생명존중 마음과 생태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어린이놀이터는 영유아(7세 이하) 동반 시, 유아 1명당 성인 2명 이하 입장이 가능하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단체)는 인솔교사 동반 시 입장이 허용되며, 8세 이상(초등학생)은 입장이 불가하다. 매일 한 회차당 180명, 총 4회차에 걸쳐 입장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농경시대 가족 일원 ‘소의 유산’ 조망

비움박물관 기획전 2월 20일까지

광주비움박물관은 겨울기획전을 지난 12일 개막, 2026년 2월 20일까지 ‘문명의 뒷마당 위낭소리’ 그 겨울은 파스했네’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농경시대 가족의 일원이었던 소와 관련된 위낭, 어묵바가지, 어묵통, 코뚜레, 멍에 등이 출품됐다. 이들 농업유산들은 이제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가운데 관람객들에게 옛 시대의 정취를 안겨줄 전망이다.

이틀째인 추운 겨울 아침이면 농부는 팔랑 팔랑

울리는 위낭 소리에 잠이 깬다. 농부는 소를 부려서 일을 했지만 그 고마움과 노고를 충분히 알았고 가족으로 여기며 애썼했다.

이번 전시에서 비움박물관은 그 시절 겨울 농가에서 잔잔하게 흐르던 정과 따스함을 위낭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취지다.

또 겨울인문학산책 12월 강연도 마련, 오는 19일 오후 7시 이뤄진다. 이날 강연에는 강형원 교수가 맡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준다면’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삶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일상의 오해·상처 닭의 유쾌한 에피소드로 풀다

문화진 제17회 개인전

28일까지 아크갤러리

일상 우리 이야기 펼쳐

작품 하나 걸어두면 근사할 것 같다.

주제 ‘암탉의 비밀’에서 암탉은 어디에서 얻은 것일까. 전시장에는 유난히 닭이 들어간 작품들이 많다. 이렇게 많은 닭들이 등장한데는 인간의 삶의 발자취에서 기인한다. 전만 화순 소재 전원주택에서 10년 정도 거주했는데 닭을 키웠다고 한다. 그때 그는 피상적으로만 알던 닭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모양이다. 나중에 애완견이나 애완묘 같은 존재와 같았던 듯 싶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고, 그 비밀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욕망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는 설명이다.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들, 욕심과 이기심으로 붉게 명든 오해와 상처들을 닭의 유쾌한 에피소드로 풀어내고 있다. 닭 이번 전시에는 닭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서사가

지 우리들의 일상에 빗대 작가만의 웅골찬 화화 세계를 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아울러 작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해피 엔딩’(happy ending)이었다. 해피 컨티뉴드(happy continued)가 아니라 ‘행복 끝’이라고 그 화사한 그림 속에 왜 새겼던 것일까가 궁금했다. 이런 사유 이면에는 결혼에 관한 관찰이 놓여 있다. 결혼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큰 행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행복 끝, 자유 시작이라는 것으로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음을 표현하곤 한다. 작가는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해학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가정집에 걸어두면 좋겠다는 물음에 그는 “우리 일상이니까 저희 그림이 제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 일상이 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화진 작가는 20년 전부터 미술을 생각했고, 언젠가는 미술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지 하다가 7~8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에 뛰어들었다. 김해성 작가한테 집중적으로 그림을 배우며 내친 감에 홍익대 미술대학원에 들어가 회화를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